

비진언성 이론에 입각한 부정극어 연구

김 미 자
(연세대학교)

Kim, Mi-Ja. 2002. *An Analysis of NPIs based on Nonveridicality Theory*.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495-518. This paper is to analyze various phenomena of NPIs based on Nonveridicality Theory. For this purpose, I present the previous studies concerning NPIs and examine their problems: Ladusaw's(1980) Downward Entailment and Zwarts'(1993) Monotonicity Theory. To solve their problems I suggest Giannakidou's(1998, 1999, 2000) Nonveridicality Theory. To conclude, this paper clarifies the reason why NPIs are licensed and resolves the problems of previous studies. I explain NPIs' phenomena in questions, modals, intentional verbs, *before*, *perhaps* and so on. I analyse the examples of NPIs in BNC, S&S, P&P to prove my claim.

1. 서론

부정극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한 문장에서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 부정 표현(negative expression)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표현을 말한다. 그러나 부정극어가 나타나는 환경을 살펴보면 명시적 부정(explicit negation)과 비명시적 부정(implicit negation) 그리고 그 외 부정이 아닌 많은 구문임을 알 수 있다.

- (1) a. He hasn't seen **any** student.
b. She didn't **lift a finger** to help him.
- (2) a. John left without saying **anything**.
b. John is too tired to go **anywhere**.
- (3) a. If you steal **any** food, they'll arrest you.
b. They insisted that we let **anyone** in.

(1a, b)에서 부정극어 any와 lift a finger는 명시적 부정인 not에 의해 인가되고 (2a, b)에서 부정극어 anything과 anywhere는 비명시적 부정을 나타내는 without과 too-to에 의해 인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3a, b)에서는 부정이 아닌 조건문과 의향동사 구문에서 부정극어 any와 anyone이 각각 인가된다. 위에서 제시한 이런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의미론적 접근, 통사론적 접근, 화용론적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 논문에서는 의미론적 접근을 다루는데, Ladusaw(1979)의 하향함의 이론(Downward Entailment Theory)과 이를 확대 발전시킨 Zwarts(1993)의 단조성 이론(Monotonicity Theory)의 분석을 부각시켜 이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Zwarts(1995)와 Giannakidou(1997, 1998, 1999, 2000)의 비진언성 이론(Nonveridicality Theory)에 입각해서 기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정극어 전반에 대한 일관성있고 통찰력있는 분석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비진언성 이론을 바탕으로 부정극어의 의미와 인가 맥락의 의미자질과 이들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 기본적인 규정을 세우고 BNC(British National Corpus: BNC)와 *Sense and Sensibility*(1811), *Pride and Prejudice*(1813)의 예문을 분석한다.

이런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Ladusaw의 하향함의 이론의 분석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한다. 3장에서는 Zwarts의 단조성 이론의 분석을 제시하고 단조성 이론이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소개된 단조성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진언성 이론을 소개하고 비진언성 이론에 의한 부정극어의 의미와 인가를 다룬다. 또한 비진언성 이론에 입각한 분석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예문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서 비진언성 이론에 입각한 부정극어 분석이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해주며 더 나아가 더 많은 부정극어 현상을 일관성 있고 통찰력있게 분석함을 주장한다.

2. Ladusaw의 하향함의

Ladusaw(1979)는 부정극어에 대해 순수 의미론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부정극어 인가조건으로 하향함의(downward entailment)를 제안한다. 이런 견해는 Ladusaw(1979)에서 시작되었으며 Hoeksema(1983), Zwarts(1986, 1993, 1996), Wouden(1997), Dowty(1994)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4) DEFINITION (Downward entailing function)

A function f is downward entailing iff for every arbitrary element X, Y it holds that: $X \subseteq Y \rightarrow F(Y) \subseteq F(X)$

상향함의(upward entailment)에서는 하위집합에서 상위집합으로의 추론이 가능하며 함의 관계가 순서 유지(order preserving)인 반면 하향함의는 상위집합에서 하위집합으로의 추론이 가능하며 함의 관계가 함의 역전(order reversing)이다. 비단조적(non-monotonic) 함수는 상위집합으로나 하위집합으로 추론을 허용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부정 표현 no, not은 하향함의 자질을, 긍정 표현 some, every는 상향함의 자질을, exactly n은 비단조적 특성을 지닌다. Ladusaw의 인가 조건은 만약 표현 a가 하향함의이면 부정극어를 인가하며 a가 상향함의거나 비단조적이라면 부정극어를 인가할 수 없다.

(5) Ladusaw's (1979) licensing condition

a is a trigger for NPIs in its scope iff a is downward entailing.

- (6) a. John didn't eat a green vegetable. →
 b. John didn't eat kale.
 c. John did not eat **anything**.

하향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6a)와 (6b)의 경우에는 (6c)와 같이 부정극어가 인가된다고 설명한다. 그 외 조건절, 비교급, 관계절을

이끄는 전칭양화사, without, before, too-to, seldom도 하향함의적 특성을 가지므로 부정극어를 인가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Ladusaw의 하향함의 이론은 부정문에서의 부정극어 인가 문제뿐만 아니라 비부정 구문에서의 부정극어 인가를 하향함의 라는 자질로 일관성있게 설명해 준다. 그러나 Ladusaw의 하향함의 이론의 문제점은 하향함의 자질은 순수 의미론적 자질이므로 사용 맥락과는 무관한 진리조건적 의미에만 제한되었다는 점과 하향함의 가 아닌데도 부정극어가 인가되는 경우와 하향함의이지만 부정극어가 인가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로 제기되었다(Linebarger 1987).

Linebarger(1987)는 하향함의가 아니지만 부정극어가 인가되는 경우로 의문문, 반의어 동사, exactly, only, 그 밖에 다른 환경에 의한 부정극어를 들고 있다.

(7) yes/no question

- a. Do you have a pet? →
- b. Do you have a cat?
- c. Do you have **any** cat?

의문문의 부정극어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Ladusaw의 하향함의 이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하향함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부정극어가 인가되지 않는 경우로 비교문, 조건절, 관계절, before 등을 들고 있다.

(8) a. If you steal food, they'll arrest you. →

- b. If you steal bread, they'll arrest you.
- c. *If you drink **any** water, you'll feel better.

하향함의 이론에 따르면 예문 (8a)는 (8b)를 함의하므로 조건절은 하향함의이며 따라서 부정극어를 인가해야한다. 그러나 (8c)의 경우 부정극어를 인가하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부정은 적절한 부정극어 인가자인 반면 some children이나 비단 조적 양화사인 exactly three students는 부정 극어를 인가하지 못한다.

- (9) a. No students saw **anything**.
 b. *Some students saw **anything**.
 c. %Exactly three students saw **anything**.

Linebarger는 비단조적 표현인 (9c)를 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이며 exactly three students가 no more than three students라는 부정 함축을 일으켜 부정극어를 인가 할 수 있다고 한다. (9c)가 사실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하향함의 접근에 대한 반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Giannakidou 1997, 1998).

Ladusaw의 하향함의는 부정극어의 인가자에 대한 일관된 의미론적 특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미론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하향함의 조건의 타당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하향함의 이론으로는 너무 좁은 예측을 하게 되어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하향함의 이론에 근거한 또 다른 문제는 연구의 초점을 인가 맥락에 국한시켰고 부정극어의 의미와 부정극어와 인가자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Zwarts(1993), Wouden(1997)의 단조성 이론

3.1. 단조성

Zwarts(1993)는 부정극어가 부정 맥락에서 인가되지만 각각 부정극어가 다양한 부정 문장에서 인가되기도 하고 인가되지 않기도 하는 현상에 착안하여 부정 맥락이 강도 또는 계층(hierarchy)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여기서 부정 표현의 강도 또는 계층을 다른 말로 부정성(negativity)의 정도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정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들은 고유한 논리자질을 가지고 있고 부정을 의미하는 강도에 따라 세 가지 계층, 약부정, 강부정, 초강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드 모르강의 법칙 네 가지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어떤 부정 표현이 드 모르강의 법칙¹⁾ 네 가지 중 많이 준수할수록 강한 부정 표현이 되

¹⁾일반적으로 드 모르강의 법칙(De Morgan's Laws)은 두 가지로 표시되지만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고 적게 준수할수록 약한 부정표현이 된다.

이런 부정성은 부정극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며 부정의 유형론에 따라서 부정극어의 유형론도 결정될 수 있다. 부정성은 단조성과 일치하는데 단조성(monotonicity)이란 명제들의 연역적 추론(deductive reasoning) 또는 추론적 가능성(inferential potential)을 말하며 특히 부정을 나타내는 세 가지 함수는 약한데서부터 강도에 따라 단조 감소 함수, 반부가 함수, 반형태 함수로 분류되며 이것은 부정극어의 인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10) Definition: Monotone Decreasing

Let B and B^* be two Boolean algebras. A function B to B^* is monotone decreasing iff for arbitrary elements $X, Y \in B$: $X \subseteq Y \rightarrow f(Y) \subseteq f(X)$.

- (11) a. The boys didn't move. \rightarrow The boys didn't run.
 b. Few linguists entered the race. \rightarrow Few linguists entered the race early.

단조 감소 함수의 정의에 따라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것은 few, at most three, seldom, rarely, none of the n N등을 들 수 있고 상위 집합에서 하위집합으로의 함의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12) Definition: Anti-additivity

Let B and B^* be two Boolean algebras.

A function f from B to B^* is anti-additive iff for arbitrary elements $X, Y \in B$: $f(X \cup Y) = f(X) \cap f(Y)$.

- (13) a. John didn't sing or dance. \leftrightarrow John didn't sing and John didn't dance.
 b. No one sang or danced. \leftrightarrow No one sang and no one danced.

-
- a. $F(X \cap Y) \subseteq F(X) \cup F(Y)$ b. $F(X) \cup F(Y) \subseteq F(X \cap Y)$
 c. $F(X \cup Y) \subseteq F(X) \cap F(Y)$ d. $F(X) \cap F(Y) \subseteq F(X \cup Y)$

반부가 함수의 특징을 보이는 것은 no N, nothing, none, neither N, never 등을 들 수 있고 단조 감소 함수의 부분집합이며 중요한 것은 부정극어를 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 Definition: Antimorphic

Let B and B* be two Boolean algebras. A function F from B to B* is antimorphic iff for arbitrary elements $X, Y \in B$: $f(X \cup Y) = f(X) \cap f(Y)$, $F(-X) = -F(X)$

- (15) a. John didn't sing or dance. \leftrightarrow John didn't sing and John didn't dance.
 b. John didn't sing and dance. \leftrightarrow John didn't sing or John didn't dance.

Zwarts와 Wouden이 분류한 세 함수 중 의미강도가 가장 큰 함수를 반형태 함수라고 하고 반부가 함수와 반배가 함수의 특징이 결합한 것으로 not을 들 수 있다.

3.2. 부정극어 분류

Zwarts는 2장에서 제시한 Ladusaw의 논리자질인 하향함의를 발전시켜 단조성 이론을 제안하고 있는데, 부정을 나타내는 자연언어 표현은 각각 다른 고유한 논리적 특성을 보이며 세 가지 함수, 즉 단조 감소 함수, 반부가 함수, 반형태 함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단조 감소 함수에서는 약부정극어가 인가되고 반부가 함수에서는 강부정극어가 인가되고 반형태 함수에서는 초강부정극어가 각각 인가된다. 부정의 의미강도에 따라 분류한 세 가지 부정표현은 부정극어의 세 형태가 인가되는 환경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부정극어의 분류와 인가가 단조성 자질에 근거하여 분류되고 설명된다.

약부정극어(weak NPI)는 부정이 지닌 논리 자질중에 가장 약한 힘을 지닌 단조 감소 함수에서 인가되는 것으로 영어의 강세가 없는 any, ever, need, care이다.

강부정극어(strong NPI)는 부정이 지닌 논리자질 중에서 중간 정도의 힘을 지닌 반부가 표현에서 인가되는 부정극어를 말하는 것으로 *yet*, *lift a finger*, *bat an eyelash* 등을 들 수 있다.

Zwarts에 따르면 초강부정극어(superstrong NPI)는 부정성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반형태적 표현에서만 인가되며 이에 속하는 예로는 영어의 *one bit*, *either*가 속한다. 독일어는 약부정극어와 강부정극어만 존재하고 초강부정극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Krifka 1995). 초강부정극어인 *one bit*은 반형태적 표현만을 요구한다.

- (16) a. *At most three linguists were **one bit** happy about these facts.
 b. *At most three linguists have talked about these facts **yet**.
 c. At most three linguists have talked about **any** of these facts.
- (17) a. *No one was **one bit** happy about these facts.
 b. No one has talked about these facts **yet**.
 c. No one talked about **any** of these facts.
- (18) a. Chomsky wasn't **one bit** happy about these facts.
 b. Chomsky didn't talk about these facts **yet**.
 c. Chomsky didn't talk about **any** of these facts.

*any*는 약부정극어에 속하고 단조 감소 함수, 반부가 함수, 반형태 함수에서 인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반형태 함수가 반부가 함수의 부분집합이고 반부가 함수가 단조 감소 함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조 감소 함수에서 인가되는 모든 약부정극어는 반부가 함수와 반형태 함수에서도 자연스럽게 인가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yet*은 그 분포에서 *any*와는 다름을 알 수 있는데, 반부가 함수와 반형태 함수에는 나타나지만 단조 감소 함수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강부정극어에 속한다. *one bit*은 단조 감소 함수와 반부가 함

수에는 인가될 수 없고 다만 반형태 함수에만 인가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one bit이 초강부정극어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초강부정극어는 반형태 함수에서만 인가된다.

3.3. 단조성 이론의 문제점

Ladusaw(1979)의 연구 이후로 하향함의 any와 같은 부정극어를 인가하는 자질로서 넓게 여겨져 왔다. 그 이후 Zwarts(1993)는 하향함의 개념을 확대하여 단조성이라는 논리자질로 부정극어를 분석하고 분류하는데 Zwarts의 단조성에 기초한 부정극어의 분류와 분석의 의의는 하향함의 이론으로 설명되었던 부분과 하향함의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웠던 많은 현상들을 해결해 준다. 또한 그의 단조성에 의한 분류와 연구는 부정극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단조성이 하향함의 확대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단조성 이론이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Krifka 1991, 1995).

의문문, 반의어 구문, 양상 구문, 습관성, 총칭문 등에서 부정극어가 인가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19) a. In her present mood, Susan might do **anything**.
b. John could do **anything** to help her.

(19)에서 부정극어 anything은 양상 동사(modal verb)²⁾ might, could에서 인가되는데 단조성 이론에 따르면 단조성을 따질 수 없으므로 설명할 수 없다(Keenan and Faltz 1985).

- (20) a. Does **anyone** here know much about this dialect?
b. Would she **lift a finger** to help you?

(20)과 같은 의문문에서의 부정극어 현상을 단조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Zwarts에 따르면 의문문은 단조성 자질이 없는 비단조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부정극어를 인가할 수 없어야 하지만 실

²⁾특히 양상동사 can, may, could, might, should에서 부정극어가 인가되고 must, must be에서는 인가되지 않는다.

제 부정극어가 인가된다.³⁾

(21) a. *Paul warned me when he saw **anything**.

b. Paul used to warn me as soon as he saw **anything**.

단조성 이론으로는 (21)이 어떤 단조성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습관성 문장에서 부정극어를 설명할 수 없다. 그 외에도 명령형, 미래형, 의향동사, 비교급, 최상급, *before*, *perhaps*, *maybe* 등에서 부정극어 현상을 단조성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⁴⁾

(22) a. Suggest **any** problems you foresee.

b. The children will leave as soon as they discover **anything**.

c. I hope there is **any** left.

d. Mary ran faster than **anyone** had expected.

e. She is the most beautiful woman I have **ever** seen in my life.

f. Perhaps **any** of your readers would inform Pilot.

일반적으로 약부정극어 *any*는 강세를 받지 않는 반면, 강부정극어 *any(whatever)*는 강세를 받는 대조를 보이는데 단조성 이론은 부정극어와 강세 사이에 관계를 무시한채 연구했다고 할 수 있다 (Krifka 1991, 1995).

(23) a. No child got{any presents/ ANY presents(whatsoEVER)}.

b. Fewer than three children got {got presents/*ANY presents(whatsoEVER)}.

세 가지 부정극어의 분류사이에 차이는 Zwarts가 제시한 것보다

³⁾의문문은 비단조적(non-monotonic)이다(Groenendijk and Stokhof 1984, 1997).

⁴⁾명령문과 총칭문도 단조적이지 않으며 의향적인 맥락, 양상 맥락도 어떤 단조성도 가지지 않는다(Keenan and Faltz 1985).

실제로 덜 분명하며 Zwarts가 약부정극어라고 분류한 *hurt a fly*와 같은 부정극어들이 실제 강부정극어와 같이 쓰인다는 점이다. 또한 부정극어가 왜 단조성 자질에 의해 인가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초강부정극어는 반형태나 어떤 수학적 용어에 의해서도 정의할 수 없다. 정의된다면 두 문장이 동일해야 하나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이다(Krifka 1991, 1995).

(24) a. John wasn't **one bit** happy about these facts.

b. *It is not the case that John was **one bit** happy about these facts.

(25) But I never had **one bit** of mail saying: 'How dare you leave your wife.'(G36875: BNC)

(25)의 *one bit*은 초강부정극어로 반드시 반형태 함수에서만 인가되어야 하나 실제로 반부가 함수인 *never*에서도 인가되는 현상을 보이므로 단조성 이론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Zwarts의 대수적 의미론에 입각했을 때 논리형식에 의한 해석이 반드시 자연언어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부정극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명사나 양화사나 한정사 등의 단조성 자질을 따져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4. 비진언성 이론

비진언성 이론은 Montague(1969)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고 그 후 Zwarts(1995)와 Giannakidou(1997, 1998, 1999, 2000)로 이어진 것으로, 부정극어는 문장 연산자에 의해 주어진 문장의 명제 내용 *p*를 함의하지 않는 비진언적 맥락에서 인가된다는 것이다.

Montague에 따르면 동사 *see*는 보어 논항에서 연관된 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함의하며 따라서 진언적(veridical)이라고 주장한다. Zwarts와 Giannakidou는 진리 함의에 의해 정의하는데, 전체 진리치가 종속절에 의해 표현된 명제의 진리치를 반드시 함의하지 않는다면 모두 비진언적(nonveridical)이다.

비진언성과 비슷한 개념을 제시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필자는 이런 개념들이 비진언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Lee(1996)는 비단언(non-assertive)을 명제내용의 진리치가 참인 것으로 주장되지 않는 것으로, 명제내용의 진리치가 거짓인 부정문과 진리치가 참이나 거짓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정해져 있지 않은 의문문, 조건문, 비교문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비진언적 맥락은 부정을 나타내는 반진언적 맥락과 그 외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 모든 맥락을 비진언적 맥락이라 분류하고 전자는 직접부정과 간접부정으로, 후자는 Lee(1996)의 비단언적 구문에 속하는 의문문, 조건문, 관계절, 비교구문에 더하여 미래형, 명령문, 감탄문, 총칭문, 양상구문, 의향동사 구문, maybe, perhaps 등을 포함시킨다. 따라서 비진언성은 Lee(1996)의 비단언적 분류와 기본전제는 같으나 비진언성에 입각한 분류가 더 폭넓고 다양한 부정극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Haspelmath(1997)에 의하면 시제나 사건이 미래이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거나 가정적인 것은 비특정적이고 비지시적이어서 비현실성(irrealis)이라고 한다. 비현실성 구문으로 want구문, 비지시적 양상이 있는 구문, 습관성, 명령문, 의문문, 조건문, 미래형 등과 부정극어가 인가되는 환경이라고 주장한다. 비진언적 맥락이 비특정적인 부분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Givon(1973, 1978)의 비현실성 단언은 명제가 인식적 차원에서 가능하거나 불확실한 것이며 평가적 차원에서 바라는 것이나 소망하는 것으로 약하게 단언되는 것이다. 발화에서 사건이나 일의 실재성, 실현성 혹은 지시성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며 소망, 희망, 의향, 의도의 실현성이 부족하다. 대부분 언어에서 명령문, 미래형, 의문문, 부정문이 비현실성으로 나타난다.

Kim(2000)⁵⁾은 시제, 양상, 양상부사, 양상동사의 보어, 비단언적 화행, 조건문 등을 통하여 비현실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시제나 양상측면에서 과거와 완료형은 현실성을 나타내고 미래는 비현실성을 나타내며 습관성은 현실성과 비현실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Zwarts와 Giannakidou의 비진언성을 중심으로 이와

⁵⁾연세대학교 어학 세미나에서 On Irrealis: the Case of Korean (u)l를 발표한 내용을 참고함(Kim 2000).

유사한 개념으로서 Lee의 비단언, Haspelmath의 비특정성, Gvon, Croft, N. Kim의 비현실성 등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비진언성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비진언성은 비진언성, 반진언성, 비특정성, 비지시성, 비한정성, 비실현성, 비실재성, 미래성, 가정성, 의향성 등의 특성을 포함한다. 이런 특성을 가지면 비진언적 맥락이 되지만 비진언적 맥락이 반드시 모든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1. 진언성, 비진언성, 반진언성

Giannakidou(1997, 1998, 1999, 2000)와 Zwarts(1995)는 다음과 같이 (비)진언성을 형식화 한다.

(26) DEFINITION

Let Op be a monadic propositional operator. The following statements hold:

- a. Op is veridical just in case $Op\ p \rightarrow p$ is logically valid. Otherwise, Op is nonveridical.
- b. A nonveridical operator Op is antiveridical just in case $Op\ p \rightarrow \neg p$ is logically valid.

명제 연산자 Op 는 만약 $Op\ p$ 가 명제 p 를 함의하면 진언적이다. 즉 $Op\ p$ 가 사실일 때마다 명제 p 도 역시 사실이라면 연산자 Op 는 진언적이다. $Op\ p$ 가 명제 p 를 함의하지 않는다면 Op 는 비진언적이다. $Op\ p$ 가 사실일 때마다 명제 p 는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비진언적 연산자는 명제 p 의 참이나 거짓을 함의하지 않는다. 반진언적 연산자는 명제 p 의 거짓을 함의하며 비진언성의 부분집합을 형성한다. 이는 마치 Quirk et al(1972)에서 비단언이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모든 반진언적 연산자는 역시 비진언적이지만 비진언적 연산자가 반진언적인 것은 아니다. Zwarts는 Giannakidou와 함께 *it is possible that, it seems that* 등과 같은 1항 연산자⁶⁾ 뿐만 아니라 *and, or, if, without,*

⁶⁾그 외 *it is necessary that, probably, perhaps, I hope that* 등을 들 수 있다.

before 등과 같은 2항 연결사도 역시 진언성, 비진언성, 반진언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각 논항 위치에 대해 유사한 정의를 제시한다.

(27) DEFINITION

Let C be a dyadic truth-functional connective. The following statements hold:

- a. C is veridical with respect to $p [q]$ just in case $pCq \rightarrow p[pCq \rightarrow q]$ is logically valid. Otherwise C is nonveridical with respect to $p[q]$.
- b. A nonveridical connective C is antiveridical with respect to $p[q]$ just in case $pCq \rightarrow \neg p[pCq \rightarrow \neg q]$ is logically valid.

2항 진리 함수적 연결사는 명제 p, q 에 대해 각각 진언적, 비진언적, 반진언적일 수 있다. pCq 가 p 를 함의하거나 q 를 함의 할 때는 C 는 진언적이며 p, q 중 어느 것도 함의하지 않는다면 비진언적이다. 비진언적 연결사가 $\neg p$ 를 함의하면 연결사는 반진언적이다. 다음 예문에서 (28)은 진언성을, (29)는 비진언성을, (30)은 반진언성을 잘 나타내 준다.

(28) a. Bill left yesterday. \rightarrow Bill left.

b. Jacob sang and Ruth cried. \rightarrow Jacob sang. Ruth cried.

(29) a. Perhaps Mary left. \nrightarrow Mary left.

b. Jacob jumped or Ruth fainted. \nrightarrow Jacob jumped. Ruth fainted.

(30) a. Mary died before she saw her grandchildren. \rightarrow Mary did not see her grandchildren.

b. John spoke without opening his eyes. \rightarrow John didn't open his eyes.

앞에서 문장의 명제 연산자가 문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논리자질인 진언성, 비진언성, 반진언성으로 구분되며 이런 명제 연산자의 자질들이 그 문장 전체의 진언성, 비진언성, 반진언성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자질에 따라 부정극어의 인가도 결정된다. Zwarts와 Giannakidou에 따르면 문장이 진언적 논리 자질인 진언성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극어를 인가할 수 없고 비진언적 논리 자질인 비진언성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극어를 인가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이 비진언적 연산자에 의해 반진언적 특성을 보이면 부정극어를 인가하며 반진언성은 비진언성의 부분집합이 된다.

4.2. 부정극어의 의미와 인가자질

본 논문에서 필자는 부정극어의 추상적 의미 자질(abstract semantic feature)로 Giannakidou의 민감성을 받아들이고 이에 의존성을 더하여 규정하고, 민감성과 의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부적으로 규정한다.

- (31) a. 부정극어는 추상적인 의미자질로 민감성(sensitivity)과 의존성(dependency)을 가지며 민감성은 하위자질로 극성(extremity)을, 의존성은 하위자질로 결핍성(deficiency)과 불완전성(incompleteness)을 가진다.
 b. 극성은 강조 표현을, 결핍성과 불완전성은 완전한 표현을 만든다.

민감성과 의존성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모든 부정극어가 추상적으로 가지는 의미자질이다. 필자는 부정극어의 의미 자질을 민감성으로 규정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 번째 이유는 부정극어가 어느 문맥에서나 자유롭게 나타날 수 없는 특이하고 제한적인 분포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부정극어가 양극을 의미하는 민감한 표현으로 가장 적은 양을 의미하는 최소량 표현(minimal expression)이나 가장 많거나 큰 것을 의미하는 최대량 표현(maximal express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 부정극어 any는 양극의 의미로 자유선택(FC any)이나 부정

극어(PS any)로 사용됨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모든 부정극어는 제한된 분포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인가맥락의 어떤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부정극어의 추상적 의미자질을 민감성으로 규정하고 부정극어는 최대치와 최소치 또는 척도상 끝점(endpoint)을 의미하는 특성 때문에 극성을 하위자질로 설정하는데 이는 부정극어가 사용되는 문장을 강조 표현으로 만든다(Israel 1996, Fauconnier 1975).

부정극어의 의미자질로 의존성을 들 수 있는데 의존성이란 부정극어가 그 자체로서는 문장에서 독립하여 쓰일 수 없고 항상 부정이나 부정 맥락에 의존하여 쓰이는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극어는 곧 불완전하고, 결핍되며 의존적 표현이다. any, ever나 최소량을 의미하는 lift a finger, drink a drop 등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으로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나 맥락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표현이다. 결핍성과 불완전성은 맥락의 인가자질과 함께 완전한 표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부정극어를 인가하는 맥락의 의미자질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Ladusaw(1979), Zwarts(1993), Wouden(1994, 1997)은 의미론적 측면에서 인가문제에 대한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으나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극어를 인가하는 맥락의 공통된 의미자질은 비진언성이라는 Zwarts(1995)와 Giannakidou(1997, 1998, 1999, 2000)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앞에서 논의한 Lee(1996)의 비단언, Haspelmath(1997)의 비특정성, Croft(1983), Givon(1973, 1978), Kim(2000)의 비현실성을 종합하여 부정극어를 인가하는 맥락의 의미자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32) 부정극어를 인가하는 맥락의 공통된 의미자질은 비진언성이며 비진언성은 비진언성, 반진언성, 비특정성, 비지시성, 비한정성, 비실현성, 비실재성, 미래성, 가정성, 의향성...등의 특성을 가진다.

비진언성이란 명제 내용의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특성을 가

진 연산자에 의해 특징지어지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비진언적, 반진언적, 비특정적, 비지시적, 비한정적, 비실현적, 비실재적, 미래적, 가정적, 의향적 특성을 보인다. 비진언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비진언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비진언성을 가졌다고 해서 세부적인 특성을 반드시 다 가지는 것은 아니다. 비진언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특성들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주어진 언어 표현이나 맥락의 지시적 특성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주어진 명제의 특성에서 기인할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부정극어의 추상적 의미자질인 민감성과 의존성은 맥락의 의미자질인 비진언성과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 (33) 부정극어는 맥락의 비진언성에 민감하고 의존적이며 인가 맥락의 비진언성은 부정극어를 인가하는 관계이다.

Giannakidou(1997, 1998, 1999, 2000)⁷는 그리스어 APIs, FCIs, PPIs, subjunctive relative clauses인 극어가 비진언성에 민감한 것으로 정의하지만 필자는 특히 긍정극어인 경우, 비진언성에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부정극어가 비진언성에 민감한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Giannakidou는 부정극어가 반진언성에 의해서만 인가되는 것으로 보는데 영어의 경우 반진언적 맥락과 비진언적 맥락에서 인가되므로 Giannakidou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any를 다른 부정극어와는 별도로 상정하고 진언성에 의해 인가되지 않는 것(anti-licensed by veridicality)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4.3. 부정극어 분류

필자는 인가 맥락으로 반진언적 맥락과 비진언적 맥락으로 구분하고 반진언적 맥락은 명시적 부정을 나타내는 직접부정과 비명시적 부정을 나타내는 간접부정으로 분류하며 직접부정에서는 부정극어가 반진언성에 의해 직접 인가되고 간접부정에서는 부정극어가 부정함축의 반진언성에 의해 간접적으로 인가됨을 주장한다. 비진

⁷Giannakidou는 그리스어 부정극어는 반진언성에 의해서만 인가되는 것으로 본다(Giannakidou 1998).

언적 맥락에서는 비진언성에 의해 부정극어가 직접 인가된다. 실제 예문 분석은 4.4에서 다루기로 한다. 비진언성 이론에 입각해 부정극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34) a. 강부정극어(strong NPI): 반진언성에 의해 직접, 간접 인가, 숙어적 표현.
 b. 약부정극어(weak NPI): 비진언성, 반진언성에 의해 직접인가, any.

부정극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논리자질인 반진언성과 비진언성이며 이런 특성은 의미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부정극어의 분포와 의미를 결정해 준다. 분포적 측면에서, 약부정극어 any가 강부정극어보다 더 넓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비진언적 맥락이 반진언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강부정극어인 숙어적 표현은 주로 반진언적 맥락에서 인가되며 약부정극어보다 더 좁은 분포를 보인다. 의미적 측면에서, 강부정극어가 반진언적 맥락에서 인가 될 때 강한 강조의 의미를 생성하고 약부정극어가 비진언적 맥락에서 인가 될 때는 약한 강조의 의미를 생성한다.

4.4. 부정극어 분석

부정극어가 실제 예문에서 어떻게 비진언성과 그것의 부분집합인 반진언성에 의해 인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반진언적 연산자는 형태상 부정을 나타내는 직접부정⁸⁾과 의미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간접부정⁹⁾으로 분류하는데 후자의 경우 Linebarger(1980, 1987)와 Giannakidou(1997, 1998, 1999, 2000)의 부정함축에 의해 간접적으로 인가된다.

- (35) a. Julius didn't **budge an inch**.(BNC)
 b. "I never had **any** conjectures about it." replied Margaret.(S&S)

⁸형태론적으로 실현된 부정을 말하는 것으로 not, no, none, nobody, never, nothing, neither 등을 말한다.

⁹간접부정은 형태적으로 부정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부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without, too-to, scarcely, deny, refuse 등을 말한다.

(35a)에서 부정극어 *budge an inch*와 (35b)의 *any*는 민감성과 의존성을 가지며 인가 맥락의 반진언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가된다.

- (36) a. They got to their target area without **any** great difficulty.(BNC)
 a'. They didn't have **any** great difficulty.
 b. He slightly bowed to the ladies without **speaking a word**.(S&S)
 b'. He didn't **speak a word**.

(36)에서 *without* 이하는 간접부정으로 (36a')와 (36b')와 같은 부정함축을 일으켜서 함축된 부정문의 반진언성에 의해 부정극어가 인가되므로 간접인가라고 할 수 있다.

- (37) a. We regret **any** inconvenience this may have caused.(BNC)
 a'. We are not satisfied with **any** inconvenience this may have caused.
 b. We regret **any** inconvenience caused to readers and to Cork Gully.(BNC)
 b'. We are not satisfied with **any** inconvenience caused to readers and to Cork Gully.

비진언성 이론에 따르면 반의어 구문 역시 (37a')와 (37b')처럼 부정함축을 일으켜 함축된 부정문의 반진언성에 의해 부정극어가 간접적으로 인가된다.

- (38) a. He denied **any** links with the IRA.(BNC)
 a'. He didn't agree **any** links with the IRA.
 b. I avoid giving **any** hint of the truth.(S&S)
 b'. I don't give **any** hint of the truth.

부정동사(negative verb)들은 내재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38a')와 (38b')처럼 부정함축을 일으킴으로 함축된 부정문의 반진언성에 의해 간접적으로 부정극어를 인가한다.

다음은 비진언적 맥락에서 부정극어 인가를 살펴보자.

- (39) a. I would give **anything** to know the truth of it.(S&S)
 b. I verily believe I could forgive him **anything**.(P&P)

단조성 이론에 따르면, 양상구문은 어떤 단조성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극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비진언성 이론에 따르면, 양상구문에서 may, can, will은 가능성 연산자로서 본질상 비진언적이며 실제 사건이 미래에 있고 실현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제 내용 p를 함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진언적 맥락인 양상구문은 비진언성에 의해 부정극어가 인가된다.

- (40) a. Does **anyone** here know much about this dialect?(BNC)
 b. "Had you **any** idea of his coming so soon?"(S&S)

의문문은 부정극어 이론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첫째, 하향함의 이론에서 의문문이 상향함의나 하향함의의 특성도 가지지 않는 비단조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단조성 이론에서도 의문문은 단조 감소나 반부가나 반형태 함수의 특징을 전혀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문문은 의문 연산자가 명제 내용 p를 함의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명제 P의 참, 거짓을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비진언적이며 따라서 부정극어를 인가하는 적절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 (41) a. If **any** difference appeared, **any** objection arose, it lasted no longer than till the force of her arguments and the brightness of her eyes could be displayed.(S&S)
 b. If he had had **any** compassion for me, he would not have danced half so much!(P&P)

비진언성 이론에 따르면, 조건절 전건은 가정적이고 실제 상황이 아니므로 본질상 비진언적이며 따라서 부정극어가 인가된다. 즉 if 로 표현된 조건 부분이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제 내용 p의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그러므로 비진언성 이론은 부정극어가 조건절 전건에서는 인가되지만 조건절 후건에서는 인가되지 않음을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조건절 후건이라도 양상이나 부정일 경우 부정극어를 인가할 수 있다.

- (42) a. We suggest **any** unnecessary use of drugs is undesirable.(BNC)
 b. We want to hear your views about **any** issue affecting the countryside.(BNC)

의향동사(intentional verb)¹⁰는 화자의 의도나 계획, 주장, 소망 등을 나타내므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이다. 의향동사가 비진언적 연산자로 작용하여 명제 내용 p의 참, 거짓을 따질 수 없으므로 비진언적이며 부정극어를 인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실동사는 명제 내용 p가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므로 진언적이며 부정극어를 인가할 수 없다.

- (43) a. Perhaps **any** attempt to sneak out would be a waste of time.(BNC)
 b. Maybe **any** inconceivable account is translatable into cognitive theory.(BNC)

하향함의 이론과 단조성 이론에 따르면, before는 하향함의 자질 즉 단조 감소성을 가지므로 부정극어가 인가되고 after는 하향함의 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극어가 인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단조성 이론은 perhaps, maybe에서 부정극어를 설명할 수 없다. 비진언성 이론에 의하면, before는 사건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므로

¹⁰대부분 의향동사 insist, want, hope, believe, suggest, think, assume 등에서 부정극어가 인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참, 거짓을 따질 수 없으며 perhaps, maybe는 사건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다만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진언적이고 따라서 부정극어가 인가된다. 그 외에 부정극어를 인가하는 많은 비진언적 맥락으로 총칭문, 명령문, 미래형, 습관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단조성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반면 비진언성 이론으로는 잘 설명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부정극어 현상에 대해 다양한 접근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 논문에서는 의미론적 접근인 Ladusaw(1979)의 하향함의 이론과 Zwarts(1993)와 Wouden(1997)의 단조성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Zwarts(1995)와 Giannakidou(1997, 1998, 1999, 2000)의 비진언성 이론을 제시하여 부정극어의 의미와 인가를 분석하였다.

비진언성 이론에 의하면, 문장 연산자 Op는 문장 p에 대해 Op p→p가 타당하면 진언적 연산자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Op는 비진언적 연산자인데 비진언적 맥락에서 부정극어가 인가된다는 것이다. 비진언적 연산자 Op는 문장 p에 대해 Op p→¬p가 타당하면 반진언적 연산자이며 반진언적 맥락에서도 부정극어가 인가되며 이것은 비진언적 맥락의 부분집합이다. 비진언적 연산자는 자기와 결합하는 것이 실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며 문장의 명제 내용 p의 진리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없게 만든다. 비진언성 이론은 부정문과 단조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부정적 맥락에 속하는 비교구문, 조건문, 의문문, 명령문, 반의어 구문, 양상 구문, 의향동사구문 등에서 나타나는 부정극어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본 논문은 비진언성 이론에 입각해 부정극어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부정극어에 대한 많은 현상과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부정극어의 의미자질과 인가 맥락의 의미 특성에 대해 일관성있는 설명이 가능하였다. 하향함의나 단조성 자질이 없는데 부정극어를 인가하는 맥락이나 인가환경의 특성이 서로 달라서 일관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문맥들도 비진언성 이론으로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부정극어 현상에 대해 예측력을 제시해 준다.

참고문헌

- 이성범. 1999. 『언어와 의미』. 서울: 태학사.
 이익환. 2000. 『영어 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http://info.ox.ac.uk/bnc> (British National Corpus)
<http://elf.chaoscafe.com> (Pride and Prejudice)
<http://elf.chaoscafe.com> (Sense and Sensibility)
 Croft, W. 1983. Quantifier scope ambiguity and definiteness.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9, 25-36.
 Fauconnier, G. 1975a. Pragmatic scales and logical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6, 353-375.
 Fauconnier, G. 1975b. Polarity and the scales principle. *Chicago Linguistic Society* 11, 188-199.
 Giannakidou, A. 1998. *Polarity Sensitivity as (Non)veridical Dependency*. Amsterdam: John Benjamins.
 Giannakidou, A. 1999. Affective dependenci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 367-421.
 Giannakidou, A. 2000. Negative concord and the scope of universals.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98, 87-120. England: Cambridge.
 Groenendijk, Jeroen, and Stokhof. 1997. Questions. In J. van Benthem and A. ter Meulen, eds., *The Handbook of Logic and Language*, 1-97. Elsevier Science Publishers.
 Haspelmath, M. 1997. *Indefinite Pronouns*. Oxford University Press.
 Hoeksema, J. 1983. Negative polarity and the comparativ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 403-434.
 Hoeksema, J. 1986. Monotonicity phenomena in natural language. *Linguistic Analysis* 16, 25-40.
 Hoeksema, J. 1994.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negative polarity items. *Linguistic Analysis* 25, 146-180.
 Israel, M. 1996. Polarity sensitivity as lexical semantics. *Linguistic & Philosophy* 19, 619-666.
 Keenan, E. L. and L. M. Faltz. 1985. *Boolean Semantics for Natural Language*. Dordrecht: D. Reidel.
 Kim, Nam-Kil. 2000. *On Irrealis: The Case of Korean (u)l*.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Krifka, M. 1991. Some remarks on polarity items. In D. Zaefferer, ed., *Semantic Universals and Universal Semantics*, 150-189. Foris.
 Krifka, M. 199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olarity items. *Linguistic Analysis* 25, 209-257.

- Ladusaw, W. 1979. *Polarity Sensitivity as Inherent Scope Relation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 Lee, Ik-Hwan. 1996. Bridging situations and NPI licensing. In S. Jerry and P. Westahl, eds., *Situation Theory and its Applications 4*. Stanford: CLSI Publication.
- Linebarger, M. 1987. Negative polarity and grammatical representation. *Linguistic & Philosophy* 11, 325-387.
- Montague, Richard. 1969. On the nature of certain philosophical entities. *The Monist* 53, 159-194.
- Pereltsvaig, A. 2000. Monotonicity-based vs. veridicality-based approaches to negative polarity. *Michigan Slavic Publications*, 328-346. MI: Ann Arbor
- Progovac, L. 1993. Negative polarity: Entailment and binding. *Linguistic & Philosophy* 16, 149-180.
- Wouden, Ton van der. 1997. *Negative Context: Collocation, Polarity and Multiple Negation*. London: Routledge.
- Zwarts, F. 1993. Three types of polarity. Ms appeared as Zwarts 1996. In F. Hamn and E. Hinrichs, eds., *Plural Quantifica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Zwarts, F. 1995. Nonveridical contexts. *Linguistic Analysis* 25, 286-312.

김미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120-749
전화번호: 02) 325-1738
E-mail: mijakim0426@hanmail.net

접수일자: 2002. 9. 24.

게재결정: 2002. 11. 15.